

손흥민 10호골...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리버풀전 1골 1도움 만점 활약 팀은 3-4 패배 6위로 추락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의 대기록을 세웠지만 소속팀 토트넘은 리버풀에 패배 6위로 추락했다.

토트넘은 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2-2023 EPL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허용하고 3-4로 석패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승점 54·골 득실 +6)은 리버풀(승점 56)에 5위 자리를 내주고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토트넘은 7위 애스턴 빌라(승점 54·골 득실 +4)와 승점이 같지만, 골 득실에서 겨우 앞선 가운데 3경기나 덜 치른 8위 브라이턴(승점 52)에도 승점 2차로 쫓기는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다만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정규리그 10호 골을 기록, EPL 개인 통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해 EPL 첫 시즌 정규리그에서 4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2016-2017시즌 14골, 2017-2018시즌 12골, 2018-2019시즌 12골, 2019-2020시즌 11골, 2020-2021시즌 17골, 2021-2022시즌 23골(공동 득점왕)을 터뜨렸고, 올 시즌에도 10골을 채워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뤄냈다.

더불어 손흥민은 EPL에서 개인 통산 103골째를 기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03골)와 함께 역대 EPL 최다득점 랭킹 32위에 랭크됐다.

손흥민은 대기록을 세웠지만 토트넘은 전반 15분 만에 3골이나 헌납하는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

전반 3분 만에 리버풀의 커티스 존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토트넘은 2분 뒤 루이스 디아스에게 추가골을 허용했고, 전반 15분에는 무함마드 살라흐에게 페널티킥으로 또다시 실점해 순식간에 0-3으로



손흥민(토트넘)이 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2-2023 EPL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슛하고 있다.

/연합뉴스

끌려갔다. 통계 전문 업체 스타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전반 15분 만에 총 13골을 헌납했다.

그러나 토트넘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토트넘은 전반 39분 이반 페리시치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투입한 크로스를 해리 케인이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추격골을 터뜨렸다.

이번 득점으로 리그 25골을 기록한 케인은 EPL 통산 208호 골을 작성하며 역대 최다득점에서 웨인 루니(208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역대 최다 골인 앨런 시어러(260골)에 이어 공동 2위다.

손흥민은 후반 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기막

힌 왼발 감아차기로 득점을 노렸지만 공이 리버풀 왼쪽 골대를 강타하고 나왔다.

손흥민은 마침내 후반 32분 후반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투입한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으로 쇄도한 뒤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득점포를 가동하며 7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다.

토트넘은 후반 48분 손흥민이 왼쪽 중원에서 차 올린 프리킥을 히샤를리송이 골 지역 정면에서 헤더로 득점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시즌 5호 도움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토트넘은 1분 뒤 리버풀의 디오구 조타에게 통탄의 결승골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어야 했다.

/연합뉴스

5연승 KIA ‘창’ 이냐 8연승 롯데 ‘방패’ 나

T 타이거즈 전망대

가장 뜨거운 두 팀이 광주에서 격돌한다.

시즌 첫 잠실원정에서 스윙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가 안방으로 돌아와 롯데 자이언츠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창원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한다.

챔피언스필드에 눈길을 쏠린다.

5연승의 KIA와 8연승의 롯데가 ‘연승’을 잇기 위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KIA는 지난 주말 화제의 팀이 됐다. 주말 시리즈 전까지 1위였던 LG 트윈스와의 대결. 지난 시즌 6승 10패로 열세를 기록했던 상대였던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됐다.

하지만 공은 등돌았다. 일단 ‘홈런=승리’라는 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최형우의 삼성전 역전 끝내기 스리런으로 분위기를 바꾼 KIA는 지난 주에도 홈런으로 연달아 승리를 낚아챘다. 김규성이 4월 26일 NC전에서 시즌 첫 홈런을 3점포로 장식하면서 승리를 불렀고, 4월 28일 LG와의 경기에서는 이우성이 8회 대타 홈런을 날리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역전과 재역전의 속마음은 힘겨루기가 전개됐

상승세 두 팀의 뜨거운 대결 주말에는 NC 상대 원정경기

던 지난 30일 경기에서도 홈런이 승부를 갈랐다. 소크라테스가 9회초 3점포를 날리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홈런을 앞세운 공격, 수비·주루도 연승의 발판이 됐다.

LG와의 첫 경기에서 KIA는 완벽 전제로 상대의 발을 묶었다. 연장 11회 승부 끝 4-3 승리를 거뒀던 이날, KIA는 상대의 주루사 2개, 견제사 3개, 도루 실패 1개로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LG의 뛰는 야구를 봉쇄하면서 시즌 첫대결을 승리로 장식한 KIA는 29일에는 6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상대를 혼들었다.

특히 9회에는 2023시즌 명장면으로 회자될 순간도 만들어졌다. 삼중도루와 함께 3루에 있던 김규성이 홈으로 내달리면서 LG의 허를 찔렀다.

부상 악재를 자우고 ‘팀워크’의 야구로 자신감을 재운 KIA는 메디나를 앞세워 롯데와 기싸움에 나선다.

앤더슨의 꾸준한 활약 속에 메디나도 앞선 부진

을 털고 본격적인 승수 사냥에 나섰다. 메디나는 지난 26일 NC와의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장식하면서 KBO 첫승에 성공했다. 올 시즌 팀에서 처음 8이닝을 소화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메디나는 눈길 끄는 ‘연승 대전’에서 롯데 박세웅을 상대한다.

지난 사직 맞대결에서는 KIA가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메디나도 4월 20일 롯데전에서 4이닝 5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이날 렉스와 한동희에게 홈런도 얻어맞는 등 자존심을 구졌던 메디나가 달라진 모습으로 ‘연승’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KIA와 롯데의 첫 시리즈는 ‘아무 것도 못지 못하는 창’과 ‘아무 것도 막지 못하는 방패’의 대결로 표현할 수 있었다. 공격 최하위의 KIA와 마운드가 부실했던 롯데가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시 만난다.

KIA는 앞짜배기 홈런 등을 앞세워 지난 주 6경기에서 33점을 뽑아냈다. 지난 주 비로 두 경기를 쓴 롯데는 4경기에서 1.50의 평균자책점을 찍으면서 4승을 만들어냈다.

5월 시작과 함께 흥미로운 창과 방패의 승부가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해란이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워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JM 이글 L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두번째 홀에서 티샷의 궤적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출신 유해란, LPGA 첫 승 다음 기회에...

LA 챔피언십 공동 6위

막판 이글·버디에도 2타 부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 유해란이 데뷔 이후 최고 순위에 올랐다.

유해란은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워서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JM 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쳤다.

4라운드 최종합계 7언더파 277타를 적어낸 유해란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 그리고 샤이엔 나이트(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올해 첫 대회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공동 7위에 이은 두 번째 톱10 진입이며 LPGA투어에 진출해 거둔 최고 성적이다.

앞서 치른 4차례 대회에서 한 번도 컷 탈락이 없던 유해란은 4차례 우승했지만, 신인왕 레이스에서는 그레이스 김(호주), 나타리타 웡타위랍(태국)에 이어 3위에 머물렀던 유해란은 이번 대회 공동 6위를 발판 삼아 추격에 불씨를 지폈다.

3라운드 선두 나이트에 2타차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유해란은 1번 홀(파4)부터 1타를

없이 빼앗겼다.

지루한 파 행진을 벌이던 유해란은 12번(파3), 13번 홀(파5) 연속 보기로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그러나 15번 홀(파5)에서 7m 이글 퍼트를 집어넣은 데 이어 16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1m 옆에 떨어뜨린 순간에 3타를 줄였다.

하지만 남은 2개 홀에서 2타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승은 연장전 끝에 해나 그린(호주)에게 돌아갔다.

이날 15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잡아내고 18번 홀(파3)에서 두번째 버디를 뽑아내며 2언더파 69타를 친 그린은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로 린시위(중국), 아디티 아쇼크(인도)와 연장전을 벌였다. 18번 홀에서 치른 첫번째 연장전에서 그린과 린시위가 나란히 버디를 뽑아내 2차 연장전에 나섰다.

그린은 그린에 불을 올려 두번의 퍼트로 파를 지켰고, 티샷을 방커에 빠뜨려 파세이브에 실패한 린시위를 따돌렸다.

고진영은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44위(1오버파 285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광주FC, 울산에 1-2 아쉬운 역전패

아쉬운 패배에도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대변하고 용기 있게 했다. 칭찬하고 싶다”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광주는 지난 30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K리그1 10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6분 기록된 이강현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 패를 기록했다.

역전패를 기록했지만 광주는 ‘선두’ 울산에 상대로 밀리지 않는 승부를 펼쳤다. 슈팅수에서도 14개(유효슈팅 11개)를 기록, 울산(슈팅 12개·유효슈팅 8개)에 앞섰다.

지난 강원·제주와의 두 경기에서 부진하게 공세

를 펼치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1부 1패에 그쳤던 광주. 이번에도 광주는 부진하게 슈팅을 날리면서 울산에 압박했다.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에 몇 차례 아쉬움을 삼켰던 광주는 후반 36분 기다렸던 골을 만들었다. 이강현이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슛을 시도했고 골대 상단에 맞은 공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후반 41분 광주가 바코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 45분에는 울산 이정효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머리로 공을 넘겼고, 주민규가 왼발로 득점에

성공했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지만 비디오판독 끝에 주민규의 득점이 인정됐고, 광주는 1-2패를 기록했다.

이정효 감독은 “1위 팀을 상대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자신감을 갖게하는 모습이였다”고 언급했다.

후반 막판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달아 허용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선수들은 1-0으로 만족하지 않고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했다. 선수들도 얼마나 승리에 목말랐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팀이 추구하는 방향이다”고 물러서지 않는 광주 스타일을 이야기했다.

한편 3경기 연속 무승(1부 2패)을 기록한 광주는 6위(4승 1부 5패·승점 13)로 한 계단 내려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